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로과 | 토지은행 도입으로, 지방도 공사기간 단축비용 절감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□ 주요내용

- (추진배경) 도로 사업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적정 보상비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물가변동, 토지보상비, 간접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도비 부담 가중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필요
 - (추진사항) 도로 사업 보상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토지은행*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용지를 사전 매입하여 필요 토지를 조기 확보 추진 중
- * 토지은행 :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 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

□ 추진내용

- 기존 보상체계 전면 개선
 - 기존 : 실시설계 완료 이후 공사발주 → 단계별 보상 시행
 - 변경 : 토지은행 제도 도입 → 일괄 보상 시행(LH) → 비축토지 공급
- 토지은행 대상사업 선정(대형 지방도사업 5개)
 -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상 사업 선정 : 보상비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
 - 대상사업 : 대동~매리, 한림~생림, 봉강~무안, 칠북~북면, 초전~대곡
 - 비축대상 : 812,413㎡, 2,276억 원
- 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업무협약 체결 [경상남도↔LH, ('20. 11.)]
 - 협업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
 - 토지은행적립금과 LH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일괄보상 시행
-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(LH↔국토교통부, '20. 12.)
 -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한 토지은행 본격 착수 시행
- 비축사업 용지보상 추진 중('21. 1. ~)
 - 토지이동(분할) 및 지장물 등 사전조사 실시 협업 실시(경남도↔LH)
 - 경남도와 LH 간 보상자료 공유 및 추진 일정 협의 등 공조체계 마련

□ 주요 성과

○ 지방도 사업 공사기간 단축

- 현재 대부분의 지방도 사업은 착공 후 보상지연 등으로 수차례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
- 토지 일괄 보상으로 기간 연장 없이 공사기간 내 준공가능 (보상기간 평균 7년 → 3년, 단축 4년)

※ 지방도 사업 기간 연장 사례

- 진교~노량 : '04. 2. ~ '09. 2. → '04. 2. ~ '20. 2.(증 11년)
- 동읍~한림 : '04. 12. ~ '09. 12. → '04. 12. ~ '18. 12.(증 9년)
- 양산~동면 : '02. 5. ~ '07. 5. → '02. 5. ~ '18. 2.(증 10.8년)

○ 도 재정 절감(796억 원)

- 보상비 : 지방채 발행 대비 388억원 절감(총보상비의 약 10.4%)
- 공사비 : 공기 내 준공 시 물가상승 282억원, 간접비 126억원 절감
- 일괄보상으로 보상기간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
- 공기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, 보상비, 간접공사비 증가 방지
- 1,000억원 공사를 1년 조기준공 시 편익은 50~100억원

○ 효율적 예산 운영 가능

- 확보한 토지에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, 향후 5년에 걸쳐 토지 매 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예산 규모와 편성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음

○ 행정신뢰도 향상

-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,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큰 폭으로 줄이고, 보다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

□ 향후 대책

○ 토지은행 대상사업 5개 보상협의 완료 : '21. 12.

○ 토지은행 대상사업 5개 수용재결 및 보상 완료 : '23. 6.